

지역 소식통

풍력발전 유지보수 전문 기업, 부안군 이전 가속화

부안군은 풍력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O&M) 기업인 티에스 윈드(TS Wind)와 윈드코리아(Wind Korea)가 본사를 부안군으로 이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풍력 발전 기술 및 운영, 유지보수(O&M)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티에스 윈드와 윈드코리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성장과 확장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시공, 해양 기초조사 등의 해양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부안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전문기업들의 부안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해상풍력 O&M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위한 기초학습지원

정읍시 가족센터가 7월부터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습지원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그룹으로 지도해 학습 발달을 돕고 학교 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다문화가족 중 6~7세(취학 전 및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다. 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직접 교육하고, 가족센터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학교, 유치원에서 그룹 교육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가족센터(중앙2길 22) 방문 또는 센터 홈페이지(jeongup.family.net.or.kr)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개인 및 소규모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백일상·돌상 대여 서비스 추진

정읍시, 시 장난감대여점 회원 가입 후 이용...다문화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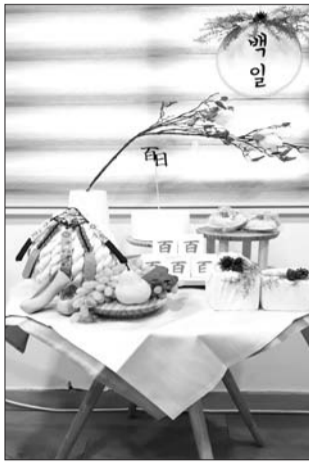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민선 8기 정읍시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당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소아 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병동도 구축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지원하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 또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대여용품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목련 꽃장식 등 고전적 느낌의 전통 상차림 소품이 마련됐고, 돌잡이 용품도 함께 제공된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장난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장난

감대여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비는 연 2만원(시설 5만원)이며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목요일 수령, 차주 화요일 반납으로 최대 5박 6일간 대여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회원들은 시 장난감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여종 1001개의 장난감을 모두 빌릴 수 있다. 개인회원은 2점, 어린이집 등 시설 회원은 5점의 장난감을 9박 10일간 월 회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선호도 높은 장난감을 구입하고 불편 사항 개선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새로 나온 장난감을 다 시주고 싶지만, 치솟은 물가로 힘든 양육자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나들목공원, 다채로운 시설로 새 단장

'유아숲 체험원' 7월 준공

고창군 도심에 위치한 나들목공원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을 확충하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먼저, 유아들을 위한 야외 체험 학습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유아숲 체험원'이 7월에 준공된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우며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어린이 생태놀이터도 문을 연다. 놀이터에는 모험 놀이 공간과 보호자 휴게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모험심을 키우고, 보호자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단풍이 곱게 물든 11월에는 황톳길, 세죽장, 족욕장을 갖춘 맨발 건강 황톳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게 된다. 또한, 여름철 최고의 놀이 공간인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철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공원과장은 "고창나들목공원을 고창군을 대표하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마음껏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 미래 농업의 주역 키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에 뜻이 있는 유망한 청년농업인을 발굴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52명을 선발해 중점 육성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

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교육·컨설팅, 후계농 정책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정착금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후계농 정책자금은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으로는 현재 단종미인대학 청년CEO반이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7~8월에 현장지원단, 컨설팅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읍에 유입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2024년도 군정질문 실시

주요 현안 및 군정 발전 대안 제시 등 31건 질의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9일 하루 동안 부안군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총 31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특히, 부안군 인구 유입 및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안만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형대 의원이 문화관광 진흥 전략 및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박병래 의원이 새만금 부지 RE100산단 유치 △이강세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대책 △김원진 의원이 부안군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과 추가 조성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어서 △이환

수 의원이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투자 대책 △이현기 의원이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 개최 여부 및 주관 부서 선정 △박태수 의원이 곰소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 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김두래 의원이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 및 청년 정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은 평소 의원들이 생각했던 군정발전 방안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질문한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이번 제시된 대안들과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는 경우 21일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지난 18일부터 부안청년UP센터 프리존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이 만든 쉼터 부안청년UP센터 프리존 개소

부안군은 지난 18일부터 부안청년UP센터 프리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프리존은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으로 청년참여 산재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해 조성됐다.

프리존은 부안청년UP센터 정문 앞에 위치해 있으며 2인실 2개와 4인실 1개 등 총 3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부 방음시공 및 방난방기 설치 등을 통해 개인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일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프리존 이용 가능 시간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매일 운영마감 후에는 정리와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리존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나 주류를 제외한 음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건물 내·외부는 전편 금연구역이며 애완동물 동반 이용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프리존은 청년의 제안으로 마련된 공간인 만큼 청년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프리존이 청년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